

국민의힘 내부서 커지는 '이종섭 사퇴론'

김학용 "민심 싸늘하게 식고 있다" 주장

안철수 "자진사퇴, 고려할 수 있는 방법"

尹대통령, 황상무 수석 사의 전격 수용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오전 전격 사퇴한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즉각 귀국' 요구를 넘어 일부 수도권 출마자들

을 중심으로 이 대사를 향한 '자진 사퇴' 요구가 분출하는 모양새다.

경기 권역 선대위원장인 김학용(경기 안성)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이종섭·황상무 논란'이 민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싸늘하게 식고 있다"며 "황 수석 사의를 받아준 것은 정말

잘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대사에 대해선 "본인으로서 안타깝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자진 사퇴하고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 공동선대위원장은 황 전 수석 사퇴와 관련 "만시지탄"이라며 "이번 일을 교훈으로 민심의 무거움을 깨닫고 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사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귀국해야 한다는 입장은 동일하다"며 '자진 사퇴론'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는 방

법 중 하나"라고 했다.

나경원(서울 동작을) 공동선대위원장은 "황 전 수석의 사퇴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고, 이 대사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민심에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앞서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4일 MBC를 포함한 대통령실 출신 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1980년대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과 5·18 민주

화운동 배후 의혹 등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인 지 몇새 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인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대통령에게 계속 누가 된다"고 생각해 스스로 결단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해병대 체포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던 이종섭 주호주대사 부임 논란까지 황 수석 문제에 겹쳐 당정 간 충돌로 비화할 조짐마저 보이자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자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황 수석은 언론 보도 이를 만인 지난 16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저의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고 했다. 다만, 야권

과 언론단체들이 사퇴를 촉구한 데 대해선 "앞으로는 공직자로서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고, 더 책임 있게 처신하겠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하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특히 수도권 등에서 여론이 악화하는 듯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당 지도부와 수도권 출마자들이 중심으로 황 수석 거취에 대한 압력이 갈수록 세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과 19일 연속해서 황 수석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KBS 기자 출신인 황 수석은 지난해 12월 4일 총선 출마를 위해 물러난 강승규 전 수석 후임으로 임명됐으나 3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다. /김진수기자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백승이 공동대표와 비례대표 후보들이 20일 국회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영덕 "대한민국, 절체절명 위기 직면"

더불어민주연합 선대위 출범... "20석 목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공동대표는 20일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중대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윤 공동대표는 이날 2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가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무능

과 독단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라, 퇴행하는 역사 흐름을 돌려세우라는 게 국민이 절절히 말씀하시는 명령"이라며 "더불어

민주연합은 역사와 국민의 지엄한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승이 공동대표도 "20석, 40%(득표율)의 목표 달성을 위해 뛰고 또 뛰겠다"며 "더불어민주연합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4·10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라는 국민의 열망을 한데 모아 진짜 변화를 만들겠다"며 "국민만 믿고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 2번 받아

개혁신당은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 1번에 이주영 전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응급학과 교수, 비례 후보 2번에 천하람 변호사를 각각 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2번을 받은 천 변호사는 국민의힘 순천향당협위원장 출신으로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을 탈당해 개혁신당에 합류했다. 당초 지역구 출마가 예상됐으나 비례로 방향을 틀었다.

3번은 기초과학자인 문지숙 차의과학대학교 바이오공학과 교수, 4번은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편의점주 곽대중(필명 불당호) 대변인, 5번은 이재인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에 돌아갔다.

정치권에서는 개혁신당의 당선 가능성 비례 순번은 5번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진수기자

민주, 조국혁신당 돌풍에 '비상'

민주연합 지지율 저조 비상... 견제 본격화

4·10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목표로 달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예기치 않은 조국혁신당의 돌풍에 '비상'이 걸렸다.

조국혁신당의 비례정당 지지율이 20%를 훌쩍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는 반면, 민주당 주도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론'을 강조하면서 "몇 년 전 우리가 박근혜 정권을 내쫓지 않았느냐"며 고강도 발언을 한 것도 조국혁신당 견제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언하고 있다. 총선 슬로건도 '3년은 너무 길다'다.

일각에서는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총선 때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경우 최대 15석 확보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반면, 더불어민주연합 지지율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10%대 후반까지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에 따라 '더불어물뿔' (지역구도, 비례도 더불어민주당) 구호를 앞세워, 조국혁신당의 '지민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캐치프레이즈에 견제구를 던지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19일 '정권 심판

은 덕담 차원에서 했지만 부적절했다니 정중히 사과한다. 더불어민주연합의 승리를 지원한다"고 몸을 낮췄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역구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만큼 비례대표 선거 전략도 본격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민주당 선대위와 더불어민주연합 선대위가 이날 합동 회의를 연 것도 세목이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을 탈당해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황운하 의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득표율 25-30%, 의석수는 12-15석이 현실적 목표"라고 말했다.

다만, 공식으로는 여전히 10석을 목표 의석으로 제시하며 설부는 낙관론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조 대표가 공식적으로 한 번도 10석을 넘어서 상향한 목표치를 언급한 적 없다"며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 조국혁신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만큼 그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민주, '조국혁신당 명예당원' 발언 박지원에 경고 조치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조국혁신당 명예당원' 발언을 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경고 조치를 했다.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지원 후보가 타당의 명예당원이 되는 것이 좋다고 한 데 대해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며 "당은 그에게 엄중히 경고

하는 것으로 이 사안은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박 후보가 별도의 공천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는 물음에 "지금으로선 경고 조치를 한 것이다"며 "민주당은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함께한다는 것을 명확히 국민들에게 말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후보는 이를 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함께 출연한 '시사인' 유튜브 방송에서 조 대표가 "저희랑 정체 인식이 똑같아서 나중에 명예당원으로 모셔야겠다"고 하자 "이중 당적은 안 되니까 명예당원은 좋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당 지도부는 전날 심야 최고위원 회의에서 박 전 원장의 징계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GREEN GOONG PRIME EVER 120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